

제 10 장 십자가: “성경대로” 만들어진 이야기

By 길 한 종

1. 주제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예수는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되었지만, 십자가 이야기에 포함되어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사실도 아니며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P. 178)
장엄하게 해석된 초상화(interpretive portrait)의 일부이다.(P. 182)

2. 문제점

- 1) 예수의 십자가 처형때 “제자들은 무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막 14:50) = 결국은 본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
- 2) 그 때문에 제자들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없애기 위해, 아픈 기억을 완화하기 위해, 그리고 책임을 벗겨주기 위한 해명으로 개발되어진 이야기이다. Ex)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 죽으셨다”(고전 15:3)
=> 예언을 이룸.

사도들이 도망친 것은 심지어 예수의 예언이었다.(P. 172)

- 3) 또한 십자가 처형 이야기는 시편 22 편과 이사야 53 장에 크게 의존한다.

Ex) 시 22: 7~8 / 14~15 / 16~17 / 20 / 18

사 53: 4~6 / 7 / 9 / 12

십자가 처형 이야기는 복음서 저자들 앞에 놓여 있던 히브리 시편과 성서에 일치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었다. (P. 176)

4) 히브리 성서의 마술적 해석(magical interpretation)

예언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vision / 예수의 말과 행동에 대한 예언 /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예수가 성취한다.

3. 논점

- 1)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묘사는 히브리성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히브리성서에서 익히 아는 메시아 이미지와 예수를 동일시하기 위해 조립(crafted)되었으며, 목격자들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 예수를 이해시키기 위해 고안된 특유한 스타일의 해석적 묘사
- 2) 곧 예수의 죽음이 무의미한 비극이 아니라 성서의 성취이며, 성스러운 구원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 dramatize 된 이야기이다.
- 3) 성서의 마술적 해석(이해)는 미신적 방법으로 성서를 보게 하지만 신빙성이 있거나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P. 180)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일어나는 이야기였다기보다는 그들이(유대인) 예수의 능력을 해석하며,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 했던 작업이며, 하느님의 의미를 체험하게 했던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하였던 것이 점차 예배형식으로 변형된 것이다.(P.181)
- 4) 극적인 인물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간주되며 교회의 기억을 바꾸어 놓았다. (강도들, 조롱한 무리들, 아리마데 요셉 등 --)

5) 모든 것은 장엄하게 해석된 초상화(interpretive portrait)의 일부이다.

(P. 182) => 예수의 삶 vs.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자기 희생적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다가옴으로 그의 죽음이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부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부활의 경험?!!!)

4. 평가 / 생각해보기

1)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나에게 어떤 다른 영향을 주는가?

2) 무엇 때문에 저자는 예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다가왔다고 하였을까?

“At some point, something happened to them that transformed his death into another expression of his life-giving love.”